



소개

리베르소 원 ‘프레스스 플라워’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 가 선보인
칼라꽃 모티프의 새로운 재해석

발레드주에 위치한 매뉴팩처의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에서 제작

주요 특징:

- **세련된 그랑 퓨 상르베 에나멜링:** 그린 칼라꽃의 경우 15 시간, 퍼플 칼라꽃의 경우 30 시간 작업 소요
- **정교한 스노-세팅 및 그레인 세팅:** 그린 칼라꽃에 409 개의 다이아몬드(2.59 캐럿)를 세팅하는 데 45 시간 소요, 퍼플 칼라꽃에 637 개의 다이아몬드(2.12 캐럿)를 세팅하는 데 95 시간 소요

2021 년, 예거 르쿨트르는 파인 위치메이킹과 공예 예술, 하이 주얼리의 코드를 통합하여 리베르소 원 케이스에 선명한 컬러와 독보적인 수준의 세련미를 더한 리베르소 원 ‘프레스스 플라워’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2025 년에는 탁월한 아름다움을 지닌 두 가지 새로운 모델, 리베르소 원 ‘프레스스 플라워’ - 그린 칼라꽃과 퍼플 칼라꽃을 선보입니다. 꽃의 아름다움을 탐구한 두 모델 모두 핑크 골드(18K - 750/1000) 케이스로 출시되며 각각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됩니다.

공예 예술과 아이코닉한 리베르소 케이스의 결합을 통해 풍부한 영감을 선사하는 컬렉션

1931 년에 처음 출시된 리베르소는 아르데코 디자인의 전형적인 예로 주목받았습니다. 본래 폴로 경기장에서 착용하기 위해 제작되었던 이 모델은 출시 1 주년이 되기도 전에 여성스러운 디자인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능과 디자인을 실용적면서도 우아하게 결합한 리베르소의 뒷면 메탈 케이스는 착용자가 메시지를 인그레이빙하거나 래커 모티프로 자유롭게 맞춤 제작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메종은 양면 케이스(특히 Ch159982)를 통해 독창적인 기회를 탐구하고 개발하여 장식 예술을 선보였습니다.

더욱 얇고 길어진 비율의 리베르소 원 케이스가 출시되면서 풍부한 컬러와 진귀한 스톤으로 장식하기에 이상적인 캔버스가 마련되었습니다. 시계의 다이얼 부분은 뒷면의 화려한 장식을 절묘하게 보여줍니다. 섬세한 마더오브펄을 배경으로 브래킷이 다이얼의 네 모서리를 장식하여 시그니처 리베르소 원 폰트로 전사된 숫자를 감싸고 있습니다. 가드룬과 러그는 그레인 세팅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으로 더욱 돋보이고, 와인딩 크라운은 리버스 세팅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꽃이라는 서정적이고 여성스러운 주제를 표현한 리베르소 원 '프레셔스 플라워' 시리즈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하얀 백합, 화사한 컬러의 칼라꽃, 열대의 극락조, 히비스커스 꽃 등을 선보였습니다. 각 모델은 에나멜링, 파요네, 인그레이빙, 래커링, 켄세팅 등 다양한 기법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특별한 예술 작품입니다.

상르베 에나멜과 다이아몬드 세팅 기술을 선보이는 모델

2025 년, 리베르소 원 '프레셔스 플라워'의 재해석은 생생한 에나멜 컬러와 브릴리언트컷 다이아몬드의 강렬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다채로운 칼라꽃은 그랑 퓨 상르베 에나멜링 기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까다로운 5 단계 공정으로 구성된 이 기법은 메탈 표면을 파내고 꽃이나 잎의 윤곽만 남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얇은 흙에 유리 에나멜 분말을 채워 넣고 최대 800°C 에서 구워냅니다. 원하는 컬러와 밝기, 깊이감을 얻으려면 한 번에 한 겹씩 최대 10 번의 에나멜 코팅과 가열이 필요합니다. 2 년 이상의 엄격한 훈련과 경험으로 기술을 익힌 에나멜 장인은 기포나 균열과 같은 결함을 방지하고 원하는 컬러를 얻기 위해 에나멜을 가마에서 꺼내야 하는 정확한 순간을 거의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료는 가열 과정에서 종종 색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디자인의 경우 에나멜 작업이 완료된 후에만 켄세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켄세팅 장인은 스톤을 세팅하는 데 부드러운 메탈이 필요한 반면, 핑크 골드나 가열 시 발생하는 매우 강한 열에 의해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소한 실수라도 수많은 시간에 걸친 에나멜링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우 높은 수준의 정밀성이 필요합니다. '프레셔스 플라워'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기 위해 그레인 세팅과 스노-세팅 기법이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그레인 세팅은 다이얼을 둘러싸며 케이스의 기하학적 형태를 강조해주며, 스노-세팅은 에나멜 모티프의 꽃과 잎 사이 메탈 부분을 장식합니다. 다양한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할 부분의 모양에 따라 배열하는 스노-세팅 기법은 거의 빈틈없이 반짝이는 표면을 만들어내어 에나멜의 생생한 컬러를 더욱 강조합니다. 아이디어 공유를 통한 공예 기술의 발전을 위해, 예거 르쿨트르는 매뉴팩처 내에 켄세팅, 인그레이빙, 다양한 에나멜 기법 등 모든 메티에 라르™(진귀한 수공예 기법)가 수행되는 전담 아틀리에를 마련했습니다. 아틀리에의 다양한 장인들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장식이 없는 금속 표면을 웅장한 주얼리 작품으로 변신시키는 과정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리베르소 원 ‘프레스스 플라워’ 그린 칼라꽃

그린 칼라꽃 모델은 오랜 시간, 세심하게 조율된 과정을 통해 세 가지 예술 기법을 결합함으로써 탄생했습니다. 그린 그랑 퓨 샹르베 에나멜링 공정에만 15 시간의 정교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꽃과 잎사귀를 둘러싼 총 409 개의 다이아몬드(2.59 캐럿)는 끈기를 요하는 스노-세팅 및 그레인 세팅 기법을 사용해 전문적으로 세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45 시간이 소요됩니다.

에나멜의 밝은 그린 톤과 대비되어 모티프에 깊이를 더하기 위해, 꽃과 잎 사이에는 블랙 래커가 사용되었습니다.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래커 처리한 재료 조각은 채울 공간의 정확한 모양과 크기로 절단된 다음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리베르소 원 ‘프레스스 플라워’ 퍼플 칼라꽃

퍼플 칼라꽃 모델은 퍼플, 핑크, 그린 그랑 퓨 샹르베 에나멜로 구성된 멋진 카메오를 그려내며, 제작하는데 총 30 시간이 걸립니다. 플로럴 디자인은 장인의 작업에 고도의 복잡성을 더하는 곡선과 각도를 선보이며 뒷면에서 베젤까지, 케이스 측면을 매끄럽게 감싸줍니다. 전체 모티프는 스노-세팅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었습니다. 총 637 개의 다이아몬드(2.12 캐럿)는 심혈을 기울인 스노-세팅 및 그레인 세팅으로 장식되었으며, 작업을 완성하는 데는 추가로 95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고도의 전문 기술을 거쳐 자연과 여성성을 기리는 리베르소 원 ‘프레스스 플라워’의 새로운 두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에나멜 컬러와 어울리는 폴리싱 처리된 앨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이 장착된 타임피스에는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킹 전문 기술력을 강조합니다. 이 모델들은 리베르소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무브먼트인 핸드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46 으로 구동됩니다.



매뉴팩처의 위치메이킹 노하우와 예술적인 장인 정신, 주얼리 제작 기술을 입증하는 새로운 리베르소
원은 예거 르쿨트르에 영감을 주는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상세 정보

리베르소 원 '프레스스 플라워' - 그린 칼라꽃

케이스: 핑크 골드 750/1000(18K)

시계 사이즈: 40 x 20mm x 9.09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46

파워 리저브: 50 시간

기능: 시-분

다이얼: 마더오브펄

케이스백: 에나멜, 다이아몬드, 래커

다이아몬드: 약 409 개의 브릴리언트컷 다이아몬드(2.59 캐럿) 세팅

스트랩: 폴리싱 처리된 그린 앨리게이터 가죽

제품 번호: Q3292434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리베르소 원 '프레스스 플라워' - 퍼플 칼라꽃

케이스: 핑크 골드 750/1000(18K)

시계 사이즈: 40 x 20mm x 9.09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46

파워 리저브: 50 시간

기능: 시-분

다이얼: 마더오브펄

케이스백: 에나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약 637 개의 브릴리언트컷 다이아몬드(2.12 캐럿) 세팅

스트랩: 폴리싱 처리된 퍼플 앨리게이터 가죽



제품 번호: Q3292435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리베르소 소개

1931 년, 예거 르쿨트르는 20 세기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자리매김한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건딜 수 있도록 제작된 위치는 세련된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형 케이스 디자인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코닉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90 년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79 개의 다양한 칼리버를 탑재하고 39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메탈 소재의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또는 젤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리베르소가 출시한 지 90 여 년이 지난 오늘날, 리베르소는 탄생에 영감을 준 모던함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위치메이커의 위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르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위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위치메이커의 위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위치메이커는 190 여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위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jaeger-lecoultre.com